

장애-비장애 벽 허물고 함께하는 세상 이끈다

전남매일 CEO이카데미 원우기업 탐방

전갑수 백양실업 회장 (제1기 고문)

장애인·다문화 고용 앞장...BF 예비 인증도
지역사회 나눔상생 실천·배구 활성화 앞장
“광주소상공인 배려 타지역 입찰 배제 했으면”

“CEO 경제아카데미에 동참한 것은 저에게 영광입니다. 참여한 인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백양실업 전갑수 회장이 제1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원우 고문을 맡은 소감이다.

(주)백양실업은 의료 세탁물 전문 처리업체다.

백양실업을 이끌고 있는 전 회장은 1997년 설립된 회사를 지난 2015년 3월 인수해 확장 운영해오고 있다. 당초 연면적 991㎡ 규모의 공장을 4,958㎡로 키우고 세탁물 입고실과 분리실, 세탁실, 다림질실, 정리실, 출하실 등으로 구분해 각 공정에 맞게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결한 세탁, 최첨단 자동화 세탁기

와 함께 백양실업을 더 주목받게 하는 것은 직원 상당수가 장애인과 다문화 여성들이란 점이다.

백양실업 전체 직원은 모두 57명으로 이 중 장애인 15명, 다문화 여성 7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호남 최초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후에는 매달 진행되는 김철원 한국장애인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장의 방문 컨설팅으로 완벽한 무장애 시설로 탄생했다.

전 회장의 배구 사랑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전 회장은 조대부고 시절 촉망되는 배구선수였고 이후 (주)백양실업, (주)이메디원, (주)나이스를 경영하는 총괄하는 CEO로 자리잡았지만 배구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이는 배구를 중심으로 한 그의 화려

한 이력으로 대신 설명할 수 있다.

광주시배구협회를 맡은 전 회장은 배구의 저변확대를 선도하는 인물이다. 광주시체육회 이사,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직무대리,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 광주시배구협회를 지냈다.

또 지난 2012년, 광주를 대표하며 위상을 떨치고 있는 광주실업배구팀인 e-메디원 팀과 호남대학교 여자배구단을 창단하는 등 광주시 배구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동분서주 맹활약하고 있다.

전 회장 “광주에서 배구협회 회장직을 맡아 책임이 막중하다”며 “배구인으로서 이용섭 시장 부임 이후 숙원사업인 동계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시민들의 건강 스포츠 레저가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전 회장은 한전 프로배구단을 광주시가 유치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만큼 전 회장은 한전 프로배구단에 대한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 또한 컸다.

전 회장은 배구를 좋아하다보니 사업에도 자연히 연결됐다.

장성에서 의료기관 전문 세탁기업을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벽을 허물어 미래 지향적인 상생모델 제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장애인들이 세탁한 옷은 깨끗하지 않을 것

이라는 선입관 때문이었다.

전 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세탁업이 자리를 잡게 됐고, 특히 장애인의 가족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

전 회장의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론에서다.

전 회장은 나눔의 대명사로 유명하다.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배구협회, 관내 대학교 등에 장학금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전 회장은 “엘리트 체육이 굉장히 힘들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운동도 못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행정적인 지원이 많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꼈고 제가 미약하나마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제가 조금 덜 쓰고 회사에서 절약하면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들에게 이렇게나마 도움을 주면 저 역시 굉장히 행복해진다”며 환하게 웃었다.

전 회장은 “호남권 경제는 주로 대기업 위주의 구조로 돼있다. 따라서 호남지역 배려차원에서 차별화 정책을 업종별로 나눠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 세탁 관련 전북업체의 경우 타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광

주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입찰이 가능하면서 이 지역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광양 스위트엠 르네상스’ 내일 오픈

바다 영구 조망...이순신 대교 ‘한 눈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교육 특화

대한토지신탁과 삼부토건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광양시 마동 1159 일원에 선보이는 ‘광양 스위트엠 르네상스’이 오는 12일 견본 주택을 오픈 한다.

광양 스위트엠 르네상스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광양만과 인접해 있고, 단지 앞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어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세대가 바다 영구 조망과 함께 웅장한 이순신대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에코뷰를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광양시청, 버스터미널, 체육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쾌적한 와우생태호수공원도 인근에 위치한다.

학교도 우수하다. 도보거리에 위치한 중동초·중, 중진초, 백운중으로 빠른 등하교가 가능하며,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라 학습권 프리미엄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망도 눈여겨볼만하다.

이순신대교와 금호대교를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순천으로의 이동

도 수월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교육 특화 커뮤니티다. 광양 스위트엠 르네상스는 광양시와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을 맺은 교육 특화 브랜드 타운이다.

이에 따라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영어 교육 프로그램 랫츠고 리딩(빅백영어)과 어린이 공부방, 맘스 카페 등 다양한 교육 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이다.

광양 스위트엠 르네상스 관계자는 “광양의 다양한 중심 생활 인프라를 갖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고, 바다 영구 조망까지 가능해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열기가 뜨겁다”며 “노후 단지 비중이 높은 광양에 선보이는 신규 브랜드 타운에 대한 광양 주민 및 인근 여·순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스위트엠 르네상스 견본주택은 12일 오픈하며, 견본주택 내방객 이벤트 및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광양시 중동 1732-2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미애 기자

취업률 지표는 올랐지만 체감온도는 ‘한파’

광주 3월 취업자 2천명 소폭 증가·실업률 0.9% ↓

#오는 8월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박모씨(24·여)는 1년째 제대로 된 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경리, 안내데스크 등 몇 가지 일에 손을 대봤지만 불안정한 미래에 자신감만 잃었다. 박씨는 “뉴스를 보면 고용시장이 좋아졌다고 한다. 계약직과 청년인턴을 포함한 수치라는 생각이 공감되지 않는다”며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취업률이 올랐다는 것에 0.01%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지역 실업률이 4%대로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 수 또한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도 광역시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대학 졸업생과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난은 오히려 가중돼 통계 수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등 고용시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광주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9.2%로 전년 동월과 같았으나 취업자는 74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다.

정부재정이 투입된 곳에서 일자리가 급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 7,000명(8.8%) 늘었고 제조업 2,000명(2.1%)에서 증가했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9.3%) 감소했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9% 하락했다. 광주 실업률은 전국 평균(4.3%)을 밑돌았고, 서울(5.6%)을 비롯한 울산(5.2%)·부산(5.1%) 등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직현

장에서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고용한파는 여전했다.

광주지역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실업률은 올해 1분기 기준 11.1%로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대학 졸업 이후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청년층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1분기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가 넘는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송수영 기자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0일 ‘광융합기술 산·학·연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광산업진흥회, 광산업 발전 방향 모색

광융합기술 산·학·연 간담회·세미나

국내 광융합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광융합기술지원법 통과 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광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광융합산업 대표기업과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광융합기

술 산·학·연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융합분야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이 주재한 산·학·연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황에 대한 설명과 광융합분야 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로

진행됐다.

최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업계의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후에 개최된 세미나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광산업이 광융합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유망 분야 신사업 발굴의 중요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와 국내외 시험·인증 지원, 광융합산업 시장정보 분석·제공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현기자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두둑 광은 ‘머니파킹통장’ 출시

광주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머니파킹통장’을 오는 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머니파킹통장’은 잠시 주치를 하듯이 일정금액을 하루만 맡겨도 약정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만 17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이며, 광주은행 모바일웹에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일반저축예금금리는 0.1%~0.2%인 반면, ‘머니파킹통장’은 이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해 더 받을 수 있다. ‘머니파킹통장’은 예금잔액 범위에 따른 4가지 구간(파킹구역 A~D) 중 가입자가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조건 없이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와 당행 및 GS25편의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혜택을 월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인이나 친구에게 ‘머니파킹통장’ 추천을 통해 최대 월 10회까지 수수료 면제혜택을 늘릴 수 있다.

